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이선우

## 이슈진단

새로운 대통령의 건설공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의 해결과제

## 연구원소식

베트남 국립건축원(VIAr)과 MOU 체결

## 발간물안내

전문건설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건설정책저널 - 해외건설특집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건설미래를 준비하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이선우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주변의 산과 숲은 온통 초록빛으로 빛나고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활기찬 계절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땀 흘리며 일하시는 건설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 건설업은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민간 발주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충북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도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장기적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저성장 경제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 가계와 기업의 소득 및 이익감소가 심화되어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이며,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와 맞물려 SOC예산은 감소되고, 건설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낙담만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젠 오스만(Eugene Haussmann)은 1853년부터 1870년까지 17년간 프랑스 파리의 시장이었습니다. 평범하였던 파리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수도 파리” 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파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문화 수도의 위상을 갖게 한 것은 오스만 시장이 단행한 다양한 도시정책 때문입니다.

비전(vision)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과 책임, 협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은 정경유착 근절, 사회 도처에 만연한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젊은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하는 것이며, 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역과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우리 건설업계도 발맞추어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상생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건설인들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내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하여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뉴딜사업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 우리도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상생발전의 한축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산업에도 기울여 우리 회원사들의 일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그는 항상 대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대나무처럼 항상 곧고 정직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우리 전문건설인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특허,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우리 건설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대통령의 건설공약

조재용 선임연구원 (adelid83@ricon.re.kr)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 정국 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고,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많은 과제가 놓여져 있다. 외부로는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의 움직임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내부로는 저성장, 내수부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원하도급의 상생문제와 해외 건설 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하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은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및 갑질 근절을 추진한다.

### • 근로자 임금보호 시스템 강화

공공공사에서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하고 향후 민간에 확대할 예정이다.

### • 국내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손해보험료 등)의 지급방안

을 개선한다.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공 주도로 추진할 예정이나, 재원마련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 노하우와 자본을 지닌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임기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65만 가구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및 중대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강화 추진을 통한 재해, 재난 예방 강화 등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 가운데는 건설업 모두가 환영할만한 공약도 있으며, 입장에 따라서는 아쉬운 공약도 있을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아닌 건설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통한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견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이 대통령이 된 만큼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의 해결과제

김태준 책임연구원 (tjkim@ricon.re.kr)

실업은 세수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 및 사회불안정 유발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치부할 요인이 아니다. 더욱이 근로권(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로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근로를 통한 생존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들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4분기 실업률은 4.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이다. 이중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월에 비해 0.3%p 상승하며 산정기준이 바뀐 1999년 이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실업은 구조적, 경기적, 기술적 실업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핵심 공약들이 일자리 관련 문제였고, 문재인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하고 청와대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가동한 것은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 10.3으로 평균 8.7보다 1.5%p 높으며, 이는 1차산업과 2차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건설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회황과 더불어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만1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수 42만 4천명 중 38.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방산업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의 취업자 역시 8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수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의 절반이상이 건설분야에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긍정적인 양적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최근 건설업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안정성확보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이다. 건설업의 연령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14.7%이며, 30세 미만이 6.4%이다. 전산업에서 30세 미만이 13.6%인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일본 건설업의 30세 미만 비중이 10.7%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도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퇴직이나 이직이 많아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근로자 업무환경과 처우의 격차가 커 직무만족도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건설업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가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생태계를 상생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로 건설업 일자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비전있는 전문적 일자리로 국민들에게 재인식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의 수립과 건설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업계 내부에서는 통찰과 반성을 통해 수평적 경쟁을 위해 희생시킨 수직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일자리문제가기 때문이다. 건설이야말로 사람과 사회를 평안하게 위한 산업이며 지금이야말로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할 시기이다.

## 베트남 국립건축원(VIA)과 MOU 체결



우리 연구원은 베트남 국립건축원과 지난 5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양 기관 관계자 및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사업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MOU)을 통하여 양 기관은 △ 양국의 시장정보 공유, △ 건설 기반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 및 수행, △ 양국 건설기업들의 사업 진출 활성화 및 지원, △ 글로벌 건설 세미나 기획/개최 등을 공동(협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 또한 베트남 건설부 및 국립건축원에서는 한국의 건설정책 및 건설 기술/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 베트남의 건설정책 및 건설기술/지식 개발 및 발전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요청하였다.

본 협약식에는 베트남 건설부 국장 및 우리 국토교통부의 해외 건설과장과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참사관 등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금융기관, 건설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더불어 양국의 관계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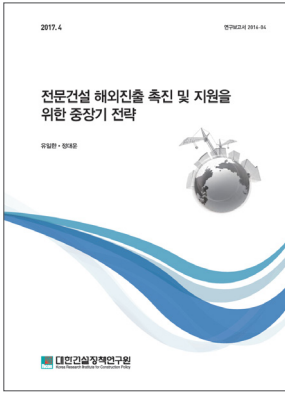
- 베트남 건설부 각 국장 등 실무자(13명), 베트남 건설관련 9개 협회 회장 및 건설 시행/개발 관련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와의 건설정책, 건설기술/공법 및 지식에 대한 교류와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상주 과장)과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참사관(이용욱 참사관)을 비롯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 촉진 및 활성화, 건설정책·기술 및 지식 공유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동 협약식에 이어 전문건설공제조합(한옥만 영업지원본부장)은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베트남 현지 건설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의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 연구원은 베트남의 발전상을 볼 때 앞으로 더욱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베트남 건축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 기관이 협력적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베트남과 한국의 건설교류 확대 및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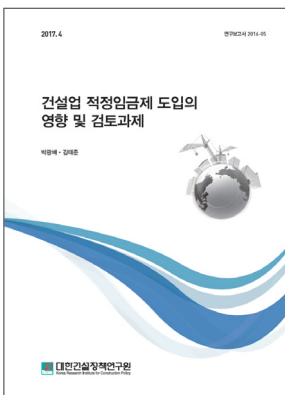
전문건설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보다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면밀한 실태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현황 및 실태, 전문건설기술 동향, 해외건설 지원정책, 대상 국가별 진출여건 등 전반적인 전문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전문건설 해외진출 전략은 전문건설업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전략과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나누어 '중점 고려사항', '진출대상 사업 및 국가', '진입방안'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우리 연구원은 최근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급격한 고령화와 신규로 건설근로자로 입직하는 근로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임금제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가격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적정임금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이 검토되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정책저널 - 해외건설특집



최근 내수시장 위축과 경쟁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차원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산·학·연·관의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하고자 해외건설 관련 전문가의 논단과 인터뷰, 해외건설 동향, 해외건설공사에 있어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 해설 등을 담은 「해외건설 특집」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25호를 발간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